

## 〈 목 차 〉

### I. 논변류(論辯類)

1. 범증에 관하여 논하다[範增論] .....4
2. 간쟁하는 신하에 대한 논설[爭臣論] .....6
3. 가의에 대하여 논하다[賈誼論] .....7
4. 글이란 무엇인가?[文論] .....8

### II. 서발류(序跋類)

5. 봄밤에 복사꽃, 오얏꽃 피는 동산에서 잔치하며 짓다[春夜宴桃李園序] .....9
6. 《창려문집》 서문[昌黎文集序] .....10

### III. 주의류(奏議類)

7. 첫 전쟁에 나아가며 올리는 표문[前出師表] .....12

### IV. 서설류(書說類)

8. 창애에게 답하다[答蒼厓] .....16
9. 진시황에게 빈객을 내쫓지 말 것을 간청하는 글 [上秦皇逐客書] .....17
10. 이익에게 보내는 답장[答李翊書] .....19
11. 이상한 시장[市肆說] : 이곡(李穀) .....20
12. 창고 도둑[倉氓說] .....21
13. 자잘한 이야기[雜說] .....22
14. 자질구레한 이야기[雜說] .....23
15. 깊은 밭갈이[深耕說] .....24

### V. 전장류(傳狀類)

16. 한가롭게 나누는 우스개[太平閑話滑稽傳] .....25
17. 책벌레[看書痴傳] .....26
18. 다섯 그루 버들 선생[五柳先生傳] : 도연명(陶淵明) .....28

### VI. 잡기류(雜記類)

19. 이택당에 관한 기록[麗澤堂記] .....29
20.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너며[一夜九渡河記] .....30
21. 취옹정에 대하여[醉翁亭記] .....31
22. 독락원에 대한 기록[獨樂園記] .....32

# I. 논변류(論辯類)

## 1. 범증에 관하여 논하다[範增論]

\*지은이 :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은 고려 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중사(仲思)이며 호는 익재(益齋), 역옹(櫟翁), 실재(實齋)이고 시호는 문충(文忠).

或問漢用三傑<sup>1)</sup>而王하고 楚不用范增<sup>2)</sup>而亡이라하니 然則  
增孰與三傑賢<sup>3)</sup>라하야 曰增方之陳平<sup>3)</sup>하야 猶謂不足이어든 況  
於三傑乎아 高祖<sup>4)</sup>之寬仁과 項羽<sup>5)</sup>之禍賊을 增所知也라

---

1) 三傑 : 한 고조(漢高祖)가 자기를 도와서 천하를 통일시킨 훌륭한 인물 세 사람을 지적하여 이를 삼절이라 하였음. 곧 장량(張良)·소하(蕭何)·한신(韓信)을 말한다.

2) 范增 : B.C. 278~B.C. 204. 진(秦) 나라 거소촌(居鄆村) 사람으로, 항우(項羽)의 모신(謀臣)이다. 항우에게 아보(亞父)라는 칭호로 존경받았으나, 결국 한(漢)과 내통한다는 혐의로 배척당하여 팽성(彭城)에서 죽었다.

3) 陳平 : 중국(中國) 전한(前漢)의 정치가(政治家)이다. 황노(黃老)의 술(術)을 배워 한(漢)나라의 고조(高祖)를 섬겼다.

4) 高祖 : B.C. 247~B.C. 195. 한(漢) 나라의 초대 황제인 유방(劉邦)을 이른다.

5) 項羽 : B.C. 232~B.C. 202. 진(秦) 나라 말기의 군인이자, 초한전쟁 때 초나라의 군주로, 우는 자이며, 이름은 적(籍)이다.

莫不信於背約<sup>6)</sup>이어늘 而羽背入關之約<sup>7)</sup>하고 莫不仁於殺  
 無罪어늘 而羽坑已降(항)之卒<sup>8)</sup>하고 莫不義於弑君<sup>8)</sup>이어늘 而  
 羽殺懷王<sup>9)</sup>하니 其至五年而後亡은 亦幸也라 高祖則初入  
 關也에 五星<sup>10)</sup>聚于東井<sup>11)</sup>하니 天與之也오 其王漢中也에  
 楚子諸侯人之慕從者<sup>12)</sup>가 數萬人이오 而項氏爪牙之臣<sup>12)</sup>도  
 亦多歸漢하니 人與之也라

6) 背約 : 약속을 등지다.

7) 入關之約 : 초 회왕(楚懷王)을 허수아비로 세운 항우가 여러 장군들에게 진(秦)을 공격하러 보내기에 앞서,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관중의 왕을 삼겠다.”고 한 약속을 이른다.

8) 弑君 : 임금을 시해하다. 弑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다는 의미이다.

9) 懷王 : ?~B.C. 296. 전국시대 초(楚)의 왕으로 장의(張儀)의 변설(辯舌)에 넘어가 국력을 소진하였고, 결국은 진(秦)에 사로잡혀 유폐(幽閉)되었다가 죽었다.

10) 五星 : 고대 중국에서부터 알려져 있던 세성(歲星:목성) · 형혹(熒惑:화성) · 태백(太白:금성) · 진성(辰星:수성) · 진성(鎮星:토성)의 5개 행성을 말한다.

11) 東井 : 이십팔수 가운데 스물두째 별자리를 이른다.

12) 爪牙之臣 : 손톱과 어금니와 같은 신하로, 호위하는 무사를 이른다.

## 2. 간쟁하는 신하에 대한 논설[爭臣論]

한유韓愈(768~824)는 당나라의 문학자 겸 사상가. 산문의 문체개혁文體改革과 시에 있어 지적인 흥미를 정련精練된 표현으로 나타낼 것을 시도하는 등 문학상의 공적을 세웠다.

夫天授人以賢聖才能이 豈使自有餘而已리오 誠欲以補其不足者也라 耳目之於身也에 耳司聞而目司見하여 聽其是非하고 視其險易(이)<sup>13)</sup>然後에 身得安焉하나니 聖賢者는 時人之耳目也요 時人者는 聖賢之身也니라 且陽子之不賢인댄 則將役於身하여 以奉其上矣요 若果賢인댄 則固畏天命而閔人窮也니 惡得以自暇逸<sup>14)</sup>乎哉아 或曰 吾聞君子는 不欲加諸人<sup>15)</sup>하며 而惡(오)訐以爲直者라하니 若吾子之論은 直則直矣어니와 無乃<sup>16)</sup>傷于德而費於辭乎아 好盡言以招人過는 國武子<sup>17)</sup>之所以見殺於齊也니 吾子其亦聞乎아

13) 驗易：험난함과 평탄함.

14) 暇逸：한가하고 편안함.

15) 不欲加諸人：《논어(論語)》〈공야장(公冶長)〉에,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저는 남이 나에게 더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저도 남에게 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子貢曰 我不欲人之加諸我也 吾亦欲無加諸人]”라는 구절이다.

16) 無乃：아마도 ~아니겠는가?

17) 國武子：춘추 시대 제(齊)나라 대부(大夫) 국무자(國武子)가 어지러운 나라에서 할 말을 다하여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좋아하다가 끝내 제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 3. 가의에 대하여 논하다[賈誼論]

\*지은이 : 소식(蘇軾, 1037~1101)은 중국 북송 때 사람. 자는 자첨(子瞻), 호는 동파거사(東坡居士), 시호는 문충(文忠). 학술에 깊었으나 당시의 대유(大儒) 정이(程頤)와 다름.

愚觀賈生<sup>18)</sup>之論<sup>컨대</sup> 如其所言이면 雖三代<sup>19)</sup>라도 何以遠過  
리오 得君如漢文<sup>이로되</sup> 猶且以不用死<sup>하니</sup> 然則是天下無堯  
舜<sup>이면</sup> 終不可以有所爲耶<sup>아</sup> 仲尼<sup>20)</sup>는 聖人<sup>이</sup>사되 歷試於天  
下<sup>하야</sup> 苟非大無道之國<sup>이면</sup> 皆欲勉彊扶持<sup>하야</sup> 庶幾一日  
得行其道<sup>하시니라</sup> 將之荊<sup>할새</sup> 先之以子夏<sup>하고</sup> 申之以冉有<sup>하시니</sup>  
君子之欲得其君<sup>이</sup> 如此其勤也<sup>하며</sup> 孟子去齊<sup>에</sup> 三  
宿而後出晝<sup>어시늘</sup> 猶曰 王其庶幾<sup>21)</sup> 召我<sup>라</sup>하시니 君子之不  
忍棄其君<sup>이</sup> 如此其厚也<sup>하며</sup> 公孫丑<sup>22)</sup>問曰 夫子何爲不  
豫<sup>시나</sup>잇고 孟子曰 方今天下舍我<sup>면</sup> 其誰哉<sup>리오</sup> 而吾何爲  
不豫<sup>리오</sup>하시니 君子之愛其身<sup>이</sup> 如此其至也<sup>라</sup>

18) 賈生 : 중국 전한(前漢) 때 정치가인 가의(賈誼)를 이른다. 당시 문제(文帝)는 그를 공경(公卿)에 임명하려 했으나, 조주발(遭周勃)과 관영(灌嬰) 등 대신들의 미움을 사 쫓겨나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夫)가 되었다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는 《신서(新書)》 등이 있다.

19) 三代 : 하(夏) · 은(殷) · 주(周)를 이른다.

20) 仲尼 : 공자의 자이다.

21) 庶幾 : 바라다.

22) 公孫丑 : 중국 제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이다.

#### 4. 글이란 무엇인가?[文論]

다자이순다이[太宰春台]

다자이순다이[太宰春台, 1680~1747]는 에도시대의 유학자. 오규 소라이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경학(經學)에서 뛰어남.

今我黨學者는 纔知弄筆이면 即言古文辭라 觀其爲文이면  
乃抄古文成語而聯綴之而已니 文理不屬(속)하고 意義不  
通이라 譬如衆坐之中에 東西南北으로 賓客雜遯하고 士女  
群居하여 言此言彼호대 或泣或笑하며 剿說<sup>23)</sup>雷同하여 紛紛  
擾擾하니 不可適聽狀라 噫라 亦可厭哉저

---

23) 剿說 : 남의 학설을 표절함.

## II. 서발류(序跋類)

### 5. 봄밤에 복사꽃, 오얏꽃 피는 동산에서 잔치하며 짓다[春夜宴桃李園序]

\*지은이 : 이백(李白, 701~762)은 중국 당나라 시인.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되며 시선(詩仙)으로 불림.

夫天地者는 萬物之逆旅<sup>24)</sup>요 光陰者는 百代之過客이라 而浮生若夢<sup>하</sup>니 爲歡幾何<sup>오</sup> 古人秉燭夜遊는 良有以也<sup>로</sup>다 況陽春召我以煙景<sup>25)</sup>하고 大塊假我以文章이라 會桃李之芳園<sup>하</sup>여 序天倫之樂事<sup>하</sup>니 群季俊秀<sup>하</sup>여 皆爲惠連<sup>26)</sup>이어늘 吾人詠歌獨慚康樂<sup>27)</sup>가 幽賞未已<sup>에</sup> 高談轉清이라 開瓊筵<sup>28)</sup>以坐花<sup>하</sup>고 飛羽觴而醉月<sup>하</sup>니 不有佳作<sup>이면</sup> 何伸雅懷<sup>리오</sup> 如詩不成<sup>이면</sup> 罰依金谷<sup>29)</sup>酒數<sup>하</sup>리라

24) 逆旅 : 여관.

25) 煙景 : 운무가 그윽한 아름다운 경치.

26) 惠連 : 중국 남조 송나라 때의 시인인 사혜련(謝惠連)을 이른다. 글을 짓는 재주가 뛰어나 족형(族兄)인 사령운(謝靈運)과 함께 '대소사(大小謝)'로 불리었다.

27) 康樂 : 강락후에 봉해진 사령운(謝靈運)을 이른다. 중국 남북조시대의 산수시인(山水詩人)으로, 당시 제대로 문학적 표현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을 시의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학사적 의미를 갖는다. 불경을 깊이 연구하여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28) 瓊筵 : 화려한 연회자리.

29) 金谷 : 진(晉)나라 부호(富豪) 석숭(石崇)의 원명(園名)이다.

## 6. 《창려문집》서문[昌黎文集<sup>30</sup>]序

\*지은이 : 이한(李漢, ?~?)은 중국 당(唐) 나라의 시인. 한유(韓愈)의 제자이자 사위로, 한유의 문집인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의 서문을 씀.

文者는 貫道之器也니 不深於斯道요 有至焉者는 不也라 易  
繇爻象하고 春秋書事하고 詩詠歌하고 書禮別其僞하니 皆深  
矣乎인저 秦漢以前엔 其氣渾然<sup>31</sup>이요 迨乎司馬遷<sup>32</sup>相如<sup>33</sup>  
董生<sup>34</sup>揚雄<sup>35</sup>劉向<sup>36</sup>之徒하여는 尤所謂傑然者也라

至後漢曹<sup>37</sup>魏하여는 氣象萎茶<sup>38</sup>하고 司馬氏以來로 規範蕩

30) 昌黎文集 : 창려(昌黎)는 한유(韓愈)의 호로, 《창려문집(昌黎文集)》은 그의 문집이다.

31) 渾然 : 뒤섞인 모양.

32) 司馬遷 : 145?~B.C. 86?.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학자. 이릉(李陵)이 흉노(匈奴)에 항복한 것을 변호하다 궁형(宮刑)에 처해지자 부친의 뜻을 이어 『사기(史記)』를 저술함.

33) 相如 : B.C. 179~B.C. 117. 중국 전한(前漢) 때의 문인. 자는 장경(長卿). 경제(景帝) 때에 무기상사(武騎常任)가 되었다가 관계에서 물러나 후량(後梁)에 가서 《자허지부(子虛之賦)》를 지어 이름을 떨쳤다.

34) 董生 : B.C. 170?~B.C. 120?. 동중서(董仲舒)를 이른다. 중국 전한(前漢) 때의 유학자. 무제(武帝)가 즉위하여 크게 인재를 구하므로 현량대책(賢良對策)을 올려 인정을 받았다. 전한의 새로운 문교정책에 참여했다.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두게 되고, 국가 문교의 중심이 유가(儒家)에 통일된 것은 그의 영향이 크다.

35) 揚雄 : B.C. 53~A.D. 18. 전한 말의 학자 겸 문인. 한(漢)나라를 대표하는 식견을 지녔다. 성제(成帝) 때 궁정문인의 한 사람으로 성제의 여행에 수행하며 쓴 《감천부(甘泉賦)》·《하동부(河東賦)》등은 화려한 문장이면서도 성제의 사치를 꼬집었다.

36) 劉向 : B.C. 79?~B.C. 8?. 중국 전한(前漢) 선제(宣帝)~성제(成帝) 때의 학자. 선제 때 간대부(諫大夫)로 등용되고 석거각(石渠閣)에서 오경(五經)을 강의하였으며, 《설원(說苑)》·《열녀전(列女傳)》·《전국책(戰國策)》 등 많은 저서를 남김.



悉<sup>하</sup>여 謂易以下爲古文<sup>하</sup>여 剽掠潛竊爲工耳<sup>라</sup> 文與道藁  
 塞<sup>하</sup>여 固然莫知也<sup>로다</sup> 先生<sup>이</sup> 生大曆<sup>39)</sup> 戊申<sup>하</sup>니 幼孤隨兄  
<sup>하</sup>여 播遷<sup>40)</sup> 韶嶺<sup>하</sup>고 兄卒<sup>에</sup> 鞠於嫂氏<sup>러니</sup> 辛勤來歸<sup>하</sup>여 自  
 知讀書爲文<sup>하</sup>여 日記數千百言<sup>이러니</sup> 比壯<sup>에</sup> 經書<sup>를</sup> 通念  
 曉析<sup>하</sup>고 酷排釋氏<sup>하</sup>며 諸史百子<sup>를</sup> 搜抉無隱<sup>이라</sup> 汗瀾卓  
 踔<sup>하</sup>고 瀟泫澄深<sup>하</sup>여 詭然而蛟龍翔<sup>하</sup>고 蔚然而虎鳳躍<sup>하</sup>며  
 鏘然而韶鈞<sup>41)</sup> 發<sup>하</sup>여 日光玉潔<sup>이오</sup> 周情孔思<sup>며</sup> 千態萬狀  
<sup>이라</sup> 卒澤於道德仁義<sup>하</sup>여 炳如也<sup>러라</sup> 洞視萬古<sup>하</sup>고 愍惻當  
 世<sup>하</sup>여 遂大拯頽風<sup>하</sup>여 教人自爲<sup>하</sup>니 時人<sup>이</sup> 始而驚<sup>하</sup>고 中  
 而笑且排<sup>호되</sup> 先生益堅<sup>한대</sup> 終而翕然隨以定<sup>하</sup>니라 嗚呼<sup>라</sup>  
 先生於文<sup>에</sup> 摧陷廓清之功<sup>이</sup> 比於武事<sup>하면</sup> 可謂雄偉不常  
 者矣<sup>로다</sup>

37) 曹：조조(曹操；155~220)를 이른다. 자(字)는 맹덕(孟德), 아명(兒名)은 아만(阿瞞)·길리(吉利)이다. 패국(沛國) 초현(譙縣, 지금의 安徽省 亳州市) 사람으로 후한 헌제(獻帝, 재위 189~220) 때에 승상(丞相)을 지냈으며, 위왕(魏王)으로 봉해졌다. 아들인 조비(曹丕)가 위나라 황제의 지위에 오른 뒤에는 무황제(武皇帝)로 추존되었다.

38) 萎荼：쇠약하고 쇠미함.

39) 大曆：중국 당나라 대종 때의 연호(766~779)이다.

40) 播遷：이리저리 옮겨 다님.

41) 韶鈞：소(韶)는 우순(虞舜)의 음악이고, 균(鈞)은 조간자(趙簡子)가 꿈에 하늘에 올라가서 들었다는 균천악(鈞天樂)을 이른다.

### III. 주의류(奏議類)

#### 7. 첫 전쟁에 나아가며 올리는 표문[前出師表]

\*지은이 : 제갈량(諸葛亮, 181~234)은 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정치가 겸 전략가. 와룡선생(臥龍先生)이라 일컬어짐. 유비(劉備)를 도와 오(吳)나라의 손권(孫權)과 연합하여 남하하는 조조(曹操)의 대군을 적벽(赤壁)의 싸움에서 대파함.

臣本布衣<sup>42)</sup>로 躬耕南陽<sup>43)</sup>하여 苟全性命於亂世<sup>44)</sup>하고 不求聞  
達於諸侯<sup>45)</sup>러니 先帝不以臣卑鄙<sup>46)</sup>하시고 猥自枉屈<sup>47)</sup>하사 三顧臣  
於草廬<sup>48)</sup>之中<sup>49)</sup>하시고 咨臣以當世之事<sup>50)</sup>하시니 由是感激<sup>51)</sup>하여  
遂許先帝以驅馳<sup>52)</sup>러니 後值傾覆<sup>53)</sup>하여 受任於敗軍之際<sup>54)</sup>  
고 奉命於危難之間<sup>55)</sup>이 爾來二十有一年矣<sup>56)</sup>니이다

42) 布衣 : 벼슬하지 않은 사람.

43) 三顧臣於草廬 : 삼고초려(三顧草廬)의 원래 말. 초가집을 세 번 방문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데려다 쓰기 위해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44) 驅馳 : 말이나 수레를 몰아 빨리 달림.

45) 傾覆 : 기울어 엎어짐.

先帝知臣謹慎이라 故로 臨崩에 寄臣以大事也하시니 受命  
以來로 夙夜憂嘆하여 恐託付不効하여 以傷先帝之明이라  
故로 五月渡瀘하여 深入不毛러니 今南方已定하고 兵甲已  
足하니 當獎率三軍하고 北定中原하여 庶竭駑鈍<sup>46)</sup>하여 攘除  
姦兇하고 興復漢室하여 還于舊都가 此臣所以報先帝而忠  
陛下之職分也니이다

---

46) 駑鈍 : 미련하고 둔함.

## 8.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을 진술하다[陳情表]

\*지은이 : 이밀(李密, 224~287)은 중국 남북조시대 진(晉) 나라의 문신.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가 개가(改嫁)한 탓에 할머니 유씨(劉氏)의 손에서 자라, 할머니의 봉양을 위해 <진정표(陳情表)>를 올리고 벼슬을 사양한 일로 유명함.

伏惟聖朝以孝治天下<sup>하사</sup> 凡在故老에도 猶蒙矜育<sup>이어든</sup> 況  
臣孤苦<sup>47)</sup> 特爲尤甚<sup>하니이다</sup> 且臣少事僞朝<sup>48)</sup>하여 歷職郎  
署<sup>49)</sup>하니 本圖宦達<sup>이요</sup> 不矜名節<sup>이라</sup> 今臣은 亡國賤俘<sup>로</sup> 至  
微至陋<sup>어늘</sup> 過蒙拔擢<sup>하니</sup> 豈敢盤桓<sup>하여</sup> 有所希冀<sup>리오</sup> 但以  
劉日薄西山<sup>하여</sup> 氣息奄奄<sup>50)</sup>하니 人命危淺<sup>하여</sup> 朝不慮夕<sup>이</sup>  
라 臣無祖母<sup>면</sup> 無以至今日<sup>이요</sup> 祖母無臣<sup>이면</sup> 無以終餘年  
이니 母孫二人<sup>이</sup> 更相爲命<sup>일새</sup> 是以區區不能廢遠<sup>이로소이다</sup>

47) 孤苦 : 외롭고 고달픔.

48) 少事僞朝 : 이밀(李密)이 젊어서 촉한(蜀漢)에서 벼슬한 것을 이른다.

49) 郎署 : 중요하지 아니한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관리.

50) 奄奄 : 숨이 곧 끊어지려고 하거나 몹시 약한 모양.

臣密은今年四十有四요 祖母劉는今年九十有六이니 是臣  
 盡節於陛下之日은長하고 報劉之日은短也라 烏鳥私情<sup>51)</sup>  
 이 願乞終養하노이다 臣之辛苦는 非獨蜀之人士와 及二州  
 牧伯所見明知라 皇天后土<sup>52)</sup>實所共鑑이오니 願陛下는 矜  
 憫愚誠하시고 聽臣微志하사 庶劉僥倖하여 卒保餘年이면 臣은  
 生當隕首요 死當結草<sup>53)</sup>리이다 臣不勝怖懼之情하여 謹拜  
 表以聞하노이다

51) 烏鳥私情 : 어미에게 되먹이는 까마귀의 효성이라는 뜻의 반포지효(反哺之孝)를 이룸.

52) 皇天后土 :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을 이룸.

53) 死當結草 : 죽어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을 이룸. 춘추 전국 시대(春秋戰國時代)에 진(晉)나라 위무자(魏武子)의 아들과 위과(魏顆)가 아버지의 유언(遺言)을 실행하지 않고 그 서모(庶母)를 개가(改嫁)시켜 순사(殉死)를 면하게 하였더니, 후에 위과(魏顆)가 전쟁에 나가 진(秦)나라의 두회(杜回)와 싸워 위태할 때, 그 서모의 아버지의 망혼(亡魂)이 적군의 앞길에 풀을 잡아 매어 두회를 사로잡게 하였다는 고사(故事)에서 온 말임.

#### IV. 서설류(書說類)

### 9. 창애에게 답하다[答蒼厓<sup>54</sup>]

\*지은이 : 박지원(朴趾源, 1737~1805)는 실학자 겸 소설가. 이용후생의 실학을 강조하였으며, 자유기발한 문체를 구사하여 여러 편의 한문소설(漢文小說)을 발표함. 저서로 《열하일기(熱河日記)》 등이 있음.

還他本分는 豈惟文章가 一切種種萬事攄然이라 花潭<sup>55</sup>出  
이라가 遇失家而泣於塗者하야 曰 爾奚泣고하니 對曰 我五  
歲而瞽으로 今二十年矣이라 朝日出往이라가 忽見天地萬  
物清明하야 喜而欲歸로되 阡陌<sup>56</sup>多歧하고 門戶相同하야 不  
辨我家하니 是以泣耳라 先生曰 我誨若歸라 還閉汝眼이면  
即便爾家라 於是에 閉眼扣相하야 信步卽到하니 此無他라  
色相顛倒<sup>57</sup>하고 悲喜爲用하야 是爲妄想이라 扣相信步은  
乃爲吾輩守分之詮諦<sup>58</sup>오 歸家之證印이라

54) 蒼厓 : 유한준(兪漢雋 : 1732~1811)의 호이다. 문장가로 평판이 높았으며, 젊은 시절에 연암과 절친하였으나, 나중에 《열하일기》를 비방하고 산송(山訟)을 벌이는 등 사이가 극히 나빠졌다.

55) 花潭 : 서경덕(徐敬德)의 호다. 이(理)보다 기(氣)를 중시하는 독자적인 기일원론(氣一元論)을 완성하여 주기론(主氣論)의 선구자가 되었다.

56) 阡陌 : 밭 사이에 난 길. 남북으로 난 것을 천(阡), 동서로 난 것을 맥(陌)이라 함.

57) 顛倒 : 엎어져서 넘어짐.

58) 詮諦 : 진정한 도리.

## 10. 진시황에게 빈객을 내쫓지 말 것을 간청하는 글

### [上秦皇逐客書]

\*지은이 : 이사(李斯, ?~B.C. 208)는 진(秦)나라 법가류(法家流)의 정치가. 시황제(始皇帝)를 좇아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단행함. 진나라에 획기적인 정치를 추진함.

臣聞吏議逐客이라하니 竊以爲過矣라하노이다 昔者에 繆公<sup>59)</sup>은 求士하여 西取由余<sup>60)</sup>於戎하고 東得百里奚<sup>61)</sup>於宛하고 迎蹇叔<sup>62)</sup>於宋하고 來邳豹<sup>63)</sup>公孫支<sup>64)</sup>於晉하니 此五子者는 不産於秦이로되 而繆公用之하여 并國二十하여 遂霸西戎하니이다

59) 繆公 : ?~B.C. 621. 목(繆)은 목(穆)은 으로도 쓴다. 춘추 시대 진나라의 제9대 군주. 이름은 임호(任好)고, 춘추오패(春秋五霸)의 한 사람이다.

60) 由余 : 중국 춘추시대 조(趙) 나라 목공(穆公)을 도와 오패를 이룬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다.

61) 百里奚 : 중국 춘추전국시대 진(秦) 목공(穆公) 때의 대부. 목공을 패주(霸主)의 지위로 이끄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움.

62) 蹇叔 : 춘추시대 진(秦)나라의 재상으로 부국강병의 큰 공로를 세웠다. 원래 송(宋)나라 출신으로 백리해(百里奚)의 친구였는데, 후에 진나라로 가서 백리해가 진 목공(秦穆公)에게 추천하여 재상이 되었다.

63) 邳豹 : 춘추시대 진(晉)나라 사람. 아버지가 진(晉)나라에서 죽음을 당하지 진(秦)나라로 달아나 진(晉)을 칠 것을 청하였던 인물.

64) 公孫支 :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는 자상(子桑)이다. 진(秦)나라 목공 때 대부가 되어 목공에게 백리해를 천거하여 패업을 이룩하게 하였다.

孝公<sup>65)</sup>은 用商鞅<sup>66)</sup>之法하여 移風易俗하여 民以殷盛하고 國以富強하며 百姓樂用하고 諸侯親服하며 獲楚魏之師하고 舉地千里하여 至今治強하니이다 惠王<sup>67)</sup>은 用張儀<sup>68)</sup>之計하여 拔三川之地하고 西并巴蜀하고 北收上郡하고 南取漢中하며 包九夷하고 制鄢郢하며 東據成臯之險하고 割膏腴之壤하여 遂散六國之從하여 使之西面事秦하여 功施到今하니이다

65) 孝公 : B.C. 381~B.C. 338. 성은 영(嬴)이고, 씨(氏)는 조(趙), 이름은 거량(渠梁)으로 진평왕(秦平王)으로 이른다.

66) 商鞅 : B.C. 390~B.C. 338. 중국 춘추전국시대 위(衛) 나라의 공자(公子). 법가(法家)의 대표적인 인물로, 진(秦) 효공(孝公)을 도와 법령을 제정하는 등 진제국(秦帝國) 성립의 기반을 세웠으나, 가혹한 법 집행으로 인해 미움을 받아 처형됨.

67) 惠王 : B.C. 356~B.C. 311. 성은 영(嬴), 이름(名)은 사(駘)이다. 시호는 혜문왕(惠文王)으로 혜왕(惠王)이라고도 한다. 진(秦)나라의 제25대 군주인 효공(孝公)의 아들이며, 제27대 무왕(武王)과 제28대 소양왕(昭襄王)의 아버지이다.

68) 張儀 : ?~B.C. 310. 중국 춘추전국시대 위(魏) 나라의 재상. 귀곡자(鬼谷子) 왕허(王詡)의 문인으로, 한(韓)·위(魏)·조(趙)·연(燕)·초(楚)·제(齊)의 육국(六國)이 진(秦) 나라를 섬기는 연횡책(連衡策)을 주장하였으나, 진 나라의 혜왕(惠王)이 세상을 떠나자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죽음.



## 11. 이익에게 보내는 답장[答李翊<sup>69</sup>書]

\*지은이 : 한유(韓愈, 768 ~ 824)은 당나라의 문학자 겸 사상가. 산문의 문체개혁(文體改革)과 시에 있어 지적인 흥미를 정련(精練)된 표현으로 나타낼 것을 시도하는 등 문학상의 공적을 세움.

六月二十六日에 愈白李生足下하노라 生之書辭甚高로되  
而其問何下而恭也오 能如是면 誰不欲告生以其道리오 道  
德之歸也有日矣온 況其外之文乎아 抑愈所謂望孔子之  
門牆<sup>70</sup>)而不入于其宮者니 焉足以知是且非邪아 雖然이나  
不可不爲生言之로라 生所謂立言<sup>71</sup>)者是也니 生所爲者與  
所期者甚似而幾矣니라 抑不知生之志하니 蘄勝於人而取  
於人耶아 將蘄至於古之立言者邪아 蘄勝於人而取於人  
이면 則固勝於人而可取於人矣니라

69) 李翊: 1681~1763.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며, 호는 성호(星湖)이다. 《성호사설(星湖僿說)》을 지어 당시 부패한 조선 사회를 개혁할 방안을 제시했다. 유형원을 계승한 그의 이러한 학풍은 후에 정약용으로 이어졌다. 중농학과 실학의 큰 인물이다.

70) 孔子之門牆: 《논어》〈자장(子張)〉에서 자공(子貢)이, “담에 비유하면 내 집의 담은 어깨 높이여서 방사(房舍)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으나, 공자의 담은 높이가 몇 길이어서 그 대문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아름다운 종묘와 다양한 방사를 볼 수가 없다.[譬之宮牆 賜之牆也及肩 窺見室家之好 夫子之牆數仞 不得其門而入 不見宗廟之美 百官之富]”라고 말한 구절이 있다. 이는 한유가 이 말을 인용하여 자기는 입언(立言)의 방법에 대해 그 언저리에 이르렀을 뿐, 깊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비유한 것이다.

71) 立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4년 조에 “가장 으뜸은 덕을 세우는 것[立德]이요 그 다음은 공을 세우는 것[立功]이요 그 다음은 말을 세우는 것[立言]이다.” 하였다.

## 12. 이상한 시장[市肆說] : 이곡(李穀)

\*지은이 : 이곡(李穀, 1298~1351)은 고려시대의 학자. 1333년 원나라 정동성 향시에 수석으로 급제함. 원제(元帝)에게 건의하여 고려에서의 처녀 징발을 중지하게 함. 문장에 뛰어났고 고려에 돌아와 정당문학을 지냄.

商賈(고)所聚<sup>하야</sup> 貿易(역)有無를 謂之市肆<sup>72)</sup>라 始予來都  
入委巷<sup>73)</sup><sup>하야</sup> 見冶容誨淫者<sup>가</sup> 隨其妍媸<sup>하야</sup> 高下其直(치)  
하고 公然爲之<sup>호대</sup> 不小羞恥를 是曰女肆니 知風俗之不美  
也<sup>라</sup> 又入官府<sup>하야</sup> 見舞文弄法者<sup>가</sup> 隨其重輕<sup>하야</sup> 高下其  
直(치)하고 公然受之<sup>하니</sup> 不小疑懼<sup>하니</sup> 是曰吏肆니 知刑政  
之不理也<sup>라</sup> 于今又見(현)人肆焉<sup>하니</sup> 自去年水旱民無食<sup>하</sup>  
야 強者爲盜賊<sup>하고</sup> 弱者皆流離<sup>74)</sup><sup>하야</sup> 無所於餬口<sup>라</sup> 父母  
鬻兒<sup>하고</sup> 夫鬻其婦<sup>하며</sup> 主鬻其奴<sup>호되</sup> 列於市賤其估<sup>하야</sup> 曾  
犬豕之不如<sup>어늘</sup> 然而有司不之問<sup>이라</sup>

72) 市肆 : 시장.

73) 委巷 : 꼬불꼬불한 좁은 길이나 좁은 골목길이나 민간의 초라함을 일컫는 말임.

74) 流離 :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음.

### 13. 창고 도둑[倉氓說]

\*지은이 : 권필(權韞, 1569~1612)은 조선 중기 선조 때의 시인. 임진왜란 때는 주전론을 주장함. 광해군 척족(戚族)들의 방종을 풍자한 궁류시(宮柳詩)로 인해 유배됨. 저서로 《석주집(石洲集)》 등이 있음.

氓有室于太倉<sup>75)</sup>之傍者가 不廢著<sup>76)</sup>하고 不耕收하며 每夕  
出而夜歸에 則必持五升米焉이라 問所從得이면 不告하고  
雖其妻兒도 莫覺也라 如是者積數十年에 其食粲如也며  
其衣華如也<sup>로대</sup>而視其室則空如也라 氓病且死에 密詔其  
子曰 倉之第幾柱에 有窾焉하니 其大客指라 米之堆積于  
內者가 咽塞而不能出이라 爾取木之如指者<sup>하야</sup> 納于窾中  
<sup>하야</sup> 迎而流之<sup>하되</sup> 日五升卽止<sup>하니</sup> 無取贏焉이라 氓旣死에  
子嗣爲之<sup>하야</sup> 其衣食如氓時라 旣而오 恨窾小不可多取라  
鑿而巨之<sup>하야</sup> 日取數斗<sup>로되</sup> 猶不足<sup>이러니</sup> 又鑿而巨之<sup>하니</sup>  
倉吏覺其奸하고 拘而戮之<sup>하니라</sup>

75) 太倉 : 도읍의 양식 창고.

76) 廢著 : 물건을 쌓아두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상인, 또는 장사.

## 14. 자잘한 이야기[雜說]

\*지은이 : 윤기(尹愷, 1741~1826)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 이익(李瀾)을 사함. 1792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지냄. 저서로 《무명자집(無名子集)》이 있음.

人有愛猫者<sup>하야</sup> 畜數三猫<sup>라</sup> 其一猫晝常眠<sup>이라</sup>가 夜輒周行以扼鼠<sup>로되</sup> 人未之見<sup>하야</sup> 以爲無能也<sup>라</sup> 他猫則夜眠於人側<sup>라</sup>가 晝或得鼠<sup>하야</sup> 必銜致人前<sup>하야</sup> 舞弄之以供翫笑<sup>하니</sup> 家人皆奇之<sup>라</sup> 雖有竊饌噬鷄之習<sup>이나</sup> 而不之罪也<sup>라</sup> 鼠以一猫夜獵之故<sup>로</sup> 不死則皆遠避<sup>하니</sup> 患遂絕<sup>이로되</sup> 人以爲他猫之功<sup>하야</sup> 遂笞其<sup>77)</sup>一猫而放之<sup>라</sup> 鼠乃相率而來<sup>하니</sup> 不可復禁<sup>라</sup> 使知者擇之<sup>면</sup> 寧畜其一猫耶<sup>아</sup> 將畜其餘猫耶<sup>아</sup>

77) 其 : 원문의 其는 '그중~'으로 해석한다. 예) 使奕秋誨二人奕 其一人專心致志 惟奕秋之爲聽 [가령 혁주가 두 사람에게 바둑을 가르치는데 그중 한 사람은 마음 집중하고 뜻을 다하여 다만 혁주의 가르침만 들었다.]

## 15. 자질구레한 이야기[雜說]

\*지은이 : 한유(韓愈, 768~824)은 당나라의 문학가 겸 사상가. 산문의 문체개혁(文體改革)과 시에 있어 지적인 흥미를 정련(精練)된 표현으로 나타낼 것을 시도하는 등 문학상의 공적을 세움.

世有伯樂<sup>78)</sup>然後에 有千里馬<sup>하</sup>니 千里馬는 常有<sup>로</sup>되 而伯樂은 不常有<sup>라</sup> 故로 雖有名馬나 祇辱於奴隸人之手<sup>하</sup>여 駢死於槽櫪<sup>79)</sup>之間<sup>하</sup>여 不以千里稱也<sup>하</sup>나니라 馬之千里者는 一食에 或盡粟一石<sup>이</sup>어늘 食(사)馬者가 不知其能千里而食也<sup>하</sup>니 是馬雖有千里之能이나 食不飽<sup>하</sup>고 力不足<sup>하</sup>여 才美不外見(현)<sup>하</sup>니 且欲與常馬等이나 不可得<sup>이</sup>니 安求其能千里也<sup>리오</sup> 策之<sup>를</sup> 不以其道<sup>하</sup>며 食之<sup>를</sup> 不能盡其材<sup>하</sup>며 鳴之不能通其意<sup>하</sup>고 執策而臨之曰 天下에 無良馬<sup>80)</sup>라<sup>하</sup>니 嗚呼<sup>라</sup> 其眞無馬耶<sup>아</sup> 其眞不識馬耶<sup>아</sup>

78) 伯樂 : 중국 춘추전국시대 진(秦) 나라 때의 인물. 방구인(方九堍)의 추천으로 목공(穆公)의 말을 관리하였으며, 천리마(千里馬) 감정의 달인으로 유명함.

79) 槽櫪 : 마구간 바닥에 까는 널빤지를 이른다.

80) 良馬 : 훌륭한 말이나 좋은 말.

## 16. 깊은 밭갈이[深耕說]

\*지은이 : 기도우슈신[義堂周信, ?~1388]는 남북조(南北朝) 시대 임제종(臨濟宗)의 학승(學僧). 오산(五山) 문학의 대표자. 범(梵)·한(漢)의 학문에 정통하였으며, 시문에 뛰어남. 저서로 《공화집(空華集)》이 있음.

空華叟郊居하며 無事出游하야 泛觀田野桑柘之間하니 有大麥同畝而異熟者어늘 質諸老農하니 曰惰農爲也라하야늘 問其所以하니 曰凡地耕而淺者는 所種之物이 必早熟而不茂하고 耕而深者는 所種之者가 必晚成而肥碩이라 是以善稼者는 患乎耕之淺이오 不患成之晚也라 而彼惰者는 用力佛專하야 所以耕有深淺하야 而熟有早晚也라 嗟乎라 今吾徒也가 耕道不深하며 而患名之晚者는 豈無愧於老農之言也邪아 余竊有感於中하야 遂書以告同學端介然하노니 端介然은 深耕者之徒也라

## V. 전장류(傳狀類)

### 17. 한가롭게 나누는 우스개[太平閑話滑稽傳]

\*지은이 :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을 국역함.

有一守令이 待客饌品定爲三品<sup>하야</sup> 嘗約邑人이라 欲厚餉者則 捫眉<sup>하야</sup> 次則 捫鼻<sup>하야</sup> 次則 捫頤<sup>하리니</sup> 每客來에 餉儀 豐殺(쇄)<sup>81)</sup>는 以此爲驗이라하다 有一客이 嘗聞其語<sup>하야</sup> 到邑 寒暄<sup>82)</sup>畢就坐<sup>라</sup>가 見太守 捫其頤<sup>하야</sup> 避席請曰 夙參(참)交 分<sup>하리니</sup> 願主人肯之以眉<sup>라</sup>하리니 守赧然<sup>하야</sup> 饌品甚盛이라

81) 豐殺 : 풍족함과 김약함.

82) 寒暄 : 안부인사.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에 관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서 유래함.

## 18. 책벌레[看書痴傳]

\*지은이 :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은 정조 때의 학자. 근세 사대가(四大家)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박학다재하고 바둑에도 일가견이 있어 <혁기론(奕棋論)> 을 썼음.

木覓山<sup>83)</sup>下에 有痴人한데 口訥<sup>84)</sup>不善言이라 性懶拙하고 不識時務<sup>85)</sup>나 奕棋尤不知也라 人辱之不辨하고 譽之不矜하며 惟看書爲樂(낙)하야 寒暑飢病은 殊不知라 自塗鴉之年<sup>86)</sup>으로 至二十一歲히 手未嘗一日釋古書라 其室甚小나 然有東牕하고 有南牕하고 有西牕焉하야 隨其日之東西하야 受明看書라

83) 木覓山 : 서울에 있는 남산의 옛 이름.

84) 口訥 :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어눌함.

85) 時務 : 시급한 일. 그 시대에 다루어야 할 일.

86) 塗鴉之年 : 종이 위에 먹을 칠하여 새까맣게 하는 어린나이.



見未見書하면 輒喜而笑하고 家人見其笑하고 知其得奇書也라 尤喜子美<sup>87)</sup>五言律하야 沉吟如痛疴한데 得其深奧면 喜甚하야 起而周旋하니 其音如鴉叫라 或寂然無響하고 瞠然熟視하며 或自語如夢寐人하고 目之爲看書痴로되 亦喜而受之라 無人作其傳하야 仍奮筆書其事하야 爲看書痴傳나 不記其名姓焉이라

---

87) 子美 : 중국 당(唐) 나라의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자다.

## 19. 다섯 그루 버들 선생[五柳先生傳] : 도연명(陶淵明)

\*지은이 : 도연명(陶淵明, 365~427)은 동진(東晉)말에서 송대(宋代) 초기에 생존했던 중국의 대표적 시인. 기교를 부리지 않은 평담(平淡)한 시풍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로부터는 경시를 받았지만, 당대 이후는 6조(六朝) 최고의 시인으로서 그 이름이 높아짐.

先生은 不知何許<sup>88)</sup>人이요 亦不詳其姓字며 宅邊에 有五柳樹하여 因以爲號焉이라 閑靖少言하고 不慕榮利하며 好讀書하되 不求甚解하고 每有意會면 便欣然<sup>89)</sup>忘食이라 性嗜酒하되 家貧하여 不能常得하니 親舊知其如此하고 或置酒而招之면 造飲輒盡하여 期在必醉하고 既醉而退하여 曾不吝情去留라 環堵蕭然<sup>90)</sup>하여 不蔽風日하고 短褐穿結하며 簞瓢<sup>91)</sup>屢空하되 晏如<sup>92)</sup>也러라 嘗著文章自娛하여 頗示己志하고 忘懷得失하여 以此自終하니라

88) 何許 : 어떤, 어떠한.

89) 欣然 : 기뻐하는 모양.

90) 蕭然 : 쓸쓸한 모양.

91) 簞瓢 : 도시락밥과 표주박에 담긴 물.

92) 晏如 : 불안하지 않고 편안함.

## VI. 잡기류(雜記類)

### 20. 이택당에 관한 기록[麗澤堂記]

\*지은이 : 이식(李植, 1584~1647)은 조선 중기 인조 때의 문신. 대제학·예조판서 등을 역임함. 장유(張維)와 더불어 당대의 이름난 학자로서 한문 4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힘. 저서로 《택당집(澤堂集)》 등이 있음.

人不可以無業하며 業不可以無居라 百工居肆以致其用한 데 君子亦猶是也라 自夫井田<sup>93)</sup>廢而民無常居하고 學校壞而士無常業하야 游閒之徒가 紛然驚於天下하며 終老而不知休나 其心志도 亦隨其骨體而化焉이라 及其久也면 則天下之道術이 又隨其俗習之所尙하야 而日新日卑하야 如飛蓬之轉於風中이라 雖東聚西散하며 倏忽<sup>94)</sup>異態나 而終則墜於地而已라

93) 井田 : 사방 9백묘(畝)의 농지를 1리(一里)로 정하고 정자(井字) 모양으로 9등분 하여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 주위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이라 하여 여덟 농가에 나누어 사유(私有)로 맡기고, 여덟 농가에 공동으로 공전을 경작케 하여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던 정전제(井田制)를 이룸.

94) 倏忽 : 갑자기.

## 21.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너며[一夜九渡河記]

\*지은이 : 박지원(朴趾源, 1737~1805)는 실학자 겸 소설가. 이용후생의 실학을 강조하였으며, 자유기발한 문체를 구사하여 여러 편의 한문소설(漢文小說)을 발표함. 저서로 《열하일기(熱河日記)》 등이 있음.

今吾夜中渡河에目不視危則危專於聽<sup>95)</sup>야而耳方惴惴焉<sup>95)</sup>하니不勝其憂라吾乃今知夫道矣<sup>96)</sup>로다冥心者은耳目不爲之累<sup>96)</sup>하고信耳目者는視聽彌審而彌爲之病焉이라今吾控夫<sup>96)</sup>가足爲馬所踐<sup>96)</sup>야則載之後車<sup>96)</sup>하고遂縱鞚浮河에攣膝聚足於鞍上<sup>96)</sup>하니一墜則河也라以河爲地<sup>96)</sup>하고以河爲衣<sup>96)</sup>하고以河爲身<sup>96)</sup>하고以河爲性情<sup>96)</sup>야於是心判一墜<sup>96)</sup>하니吾耳中엔遂無河聲<sup>96)</sup>이오凡九渡無虞<sup>96)</sup>야如坐臥起居於几席之上이니라

95) 惴惴 : 몹시 두려워 벌벌 떨.

96) 控夫 : 말고삐를 당기는 마부.

## 22. 취옹정에 대하여[醉翁亭記]

\*지은이 : 구양수(歐陽修, 1007~1072)는 중국 송나라의 정치가 겸 문인. 태자소사(太子少師)를 지냄. 송나라 초기의 미문조(美文調) 시문인 서곤체(西崑體)를 개혁하고, 당나라의 한유를 모범으로 하는 시문을 지음. 당송8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 저서로 《구양문충공집(歐陽文忠公集)》 등이 있다.

環滁는 皆山也라 其西南諸峰이 林壑尤美하여 望之蔚然而  
深秀者는 琅琊也요 山行六七里에 漸聞水聲潺潺而瀉出  
于兩峰之間者는 釀泉也요 峰回路轉에 有亭翼然하여 臨于  
泉上者는 醉翁亭也라 作亭者誰오 山之僧智僊也요 名之  
者誰오 太守自謂也라 太守與客으로 來飲于此할새 飲少輒  
醉하고 而年又最高라 故로 自號曰 醉翁也라하니 醉翁之意는  
不在酒하고 在乎山水之間也니 山水之樂을 得之心而寓之  
酒也라

## 23. 독락원에 대한 기록[獨樂園記]

\*지은이 :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은 중국 북송(北宋)의 정치가·사학자. 신종이 왕안석을 발탁하여 신법을 단행하게 하자 이에 반대해 사퇴함.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완성함.

迂叟가 平日讀書호되 上師聖人하고 下友群賢하여 窺仁義之原하고 探禮樂之緒하여 自未始有形之前으로 暨四達無窮之外히 事物之理가 舉集目前하여 可者學之하되 未至夫可하니 何求於人이며 何待於外哉리오 志倦體疲하면 則投竿取魚하고 執衽菜藥하며 決渠灌花하고 操斧剖竹하며 濯熱盥水하고 臨高縱目<sup>97)</sup>하여 逍遙徜徉<sup>98)</sup>하여 惟意所適하니 明月이 時至하고 清風이 自來라 行無所牽하고 止無所扼하여 耳目肺腸을 卷爲己有하여 踽踽焉<sup>99)</sup>洋洋焉<sup>100)</sup>하니 不知天壤之間에 復(부)有何樂이 可以代此也로다 因合而命之 曰獨樂이라 하노라

97) 縱目 : 눈을 맘대로 돌려 눈 닿는데 까지 봄.

98) 徜徉 : 이리저리 거닐음.

99) 踽踽焉 : 홀로 걷는 모양.

100) 洋洋焉 : 거리낌 없는 모양.